

목포대·순천대...동서 경쟁보다 정원 확대 힘 모아야

전남권 의대 유치 주도권 싸움...이번엔 동부권서 국회 토론회

소병철 의원 주관, 순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 주장
지난 6월 김원이 목포 유치 토론회...경쟁 과열 안돼

3일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개최한 '의과대학 역할 및 공공의료 강화' 관련 토론회는 전남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국내 의사 수의 절대 부족으로 지방에는 제대로 된 의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통계와 전문가 발언 등을 통해 거듭 증명됐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소병철 의원이 주관하고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명칭은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으로 의견 상 동부권 의대 신설을 강조하지는 않았으나 곳곳에서 신설될 의대의 동부권 유치 필요성이 강조됐다.

순천대 박기영 대학원장은 토론자로 나서 "전남권은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중 의과대학이 한 개도 없는 지역이며, 상급종합병원도 광주시에 2개, 화순군에 1개가 존재하지만, 동부권에는 상급병원이 1개도 없는 의료사각지대"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낸 의료취약지역 연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광주권은 2.4명으로서 광주권은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며 "그러나 서부권은 1.58명이며 동부권은 더 낮은 1.44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그러면서 "지역 중심 국립대학 중에서 전국 최약의 의료 소외지역에 위치한 곳에 의과대학을 최우선 신설해 의료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으로 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신설될 의대의 전남 동부권 유치를 주장했다.

앞서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월 22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목포대 의대 유치 토론회를 열어 의대 유치의 당위성과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목포 의대 신설과 운영, 실현 등을 시민들과 의논했다"며 "앞으로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에 따른 과정, 문제점을 공개해 시민들과 토론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에는 전남권 의대 유치 산파로 평가받는 정의당 윤소하 전 의원이 참석해 "교육부가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해 보건 사회연구원서 타당성과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당첨지 지난달 23일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공공의료체계



3일 국회에서 열린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과대학 전남 동부권 유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

강화 대책 발표 이후 목포대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권과 순천대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 경쟁은 가열되고 있다. 30년 숙원 해결이 눈앞에 왔고 지난 4·15총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불릴 정도로 의대 유치를 두고 동서 대립이 극심했던 터라 의대 유치

환경 성명도 두 지역이 앞다퉈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남지역 의대 설립 필요성은 확인됐고 당국이 이미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최소 100명, 나아가 보다 많은 수의 의대 정원

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100명 이상이 확보돼야 의대와 부속 병원을 동시에 각각 설립하는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세울 수 있다. 불필요한 전남 동서 간 경쟁보다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할 때"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무안~제주 하늘길 재개 청정 전남으로 오세요

도, 제주서 관광지 등 홍보

전남도도가 코로나 19사태로 중단한 무안~제주 노선의 운항 재개를 계기로 한국공항공사, 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주공항과 제주도 주요 해수욕장 등에서 여름 휴가철 무안과 제주 하늘길을 이용한 청정 전남 대표 관광지를 홍보하고 나섰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90만 명(2018년 대비 64.8% 증가)이 이용해 전국 15개 공항 중 상승률 전국 1위를 달성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3월부터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현재 무안공항에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취항률과 매출액 1위인 제주항공이 지난 7월 17일부터 제주행 노선을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주 4회 부정기 운항 중이다.

전남도도와 관계기관은 이번 홍보활동으로 정상가격에서 70~80% 할인된 2~3만원대 특가 항공요금을 집중 소개하고, 지역 대표 관광지인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무안백련지 등 여름 휴가철 전남 여행정보 등을 담은 안내 브로슈어도 배포했다.

특히 '전남 여행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공모전'을 8월중에 개최해 국민적 관심과 함께 공항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45년 에너지 자립" 광주시, 에너지영향평가제 시행

광주시의 3대 뉴딜 핵심과제 중 하나인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달성을 위해 광주시가 에너지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윤섭 광주시장은 3일 월간 정례조회에서 "건축·건설 등 인허가, 일정 규모 이상 예산 사업에서 환경·교통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에너지 영향 평가를 받도록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산업단지과 아파트 등 건립을 승인할 때 '자체 생산한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 '에너지 자족'의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린 산단에 조성 중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을 대표 사례로 삼아 '광주형 일자리' 뿐 아닌 신재생 에너지 자립 공장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 시장은 "에너지 자립 도시 선언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철저한 양방향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는 재생 에너지 생산·유통 효율화, 낭비 요소 차단 등 관리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에너지영향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탈탄소화를 실천할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고 시민사회와 공동체 선연도 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에너지 자립 도시의 핵심 원칙은 자기가 쓰는 에너지는 자기가 생산한다는 것"이라며 "150만 시민의 참여가 없이는 실현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공동체와 함께 도전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1일 인공지능(AI)-그린 뉴딜 비전을 발표하면서 2045년까지 외부로부터 전력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아마존 운영사 1천만불 수출 협약

전남도는 3일 미국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던 운영사인 크리에이티브 열열씨(Kreassive LLC)와 농수산식품 100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선장(Sean Chang) 크리에이티브 대표, 아놀드 전(Arnold Jeon) 부대표, 도내 수출기업인 장현순네 시피&B 대표, 김남욱 해남고구마식품 주식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크리에이티브는 지난 2014년 미국 LA에 설립돼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과 중국에도 지사를 두고 연 3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

리고 있다. 국내 파트너 기업으로 정관장과 화이트스톤, LG생활건강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은 아마존 등 온·오프라인 판로를 활용해 향후 2년간 전남지역 농수산식품 1000만 달러를 수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남도 최초로 전자협약시스템을 활용해 체결됐다.

앞으로 크리에이티브는 농수산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전남도내 수출기업 컨설팅을 비롯 제품 현지화 지원 등에 주력하고, 전남도는 협약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산업화 디자인프로젝트 '성과'

15개 기업 매출·고용 증가

광주시가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산업화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화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15개 기업의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매출은 연

평균 5.6%(3,834억원→4,049억원), 고용은 9.3%(310명→339명) 이상 증가했다.

15개 기업의 지난해 전체 수출 실적도 16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1570만달러 180억 원 →1640만달러 190억 원)로 증가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 및 고부가가치품 개발 촉진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디자인, 마케팅,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단을 투입해 현황을 진단하고 전략을 제시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 전주기적(2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과 광주테크노파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일렉트로맨 공기청정기'를 개발한 디케이(주)와 '무선 초미립자 분사기'를 개발한 (주)에스엠뿌레를 꼽을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시장, "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 상시 조사"

광주시가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상시 조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일 월간 정례조회에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위반 사례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업무를 전담해 부동산 불법 거래 상시 조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8년 9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30여차례 단속을 했으나 아직도 다문 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6개월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하계 휴가 실시도 주문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